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2일 00시 39분

나만의 별이 빛나는 밤(정사임)

2015.10.06 조희수 126 등록자 김경아

선생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 고흐의 그림의 특징은

구불구불한 선을 잘 그린다는 것이었다.

여러 그림들 중에서 '별이 빛나는 밤'을 은서와 협동해서 그려보려 애썼지만

역시 대 화가의 그림을 따라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이었다.

핑계같지만 매직과 물감만으로 그려서인지

색깔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물감과는 느낌이 달랐다.

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니 나만의 별이 빛나는 밤도 꽤 괜찮은 그림인 것 같았다.

수업시간 본 그림 중 세잔의 빅토리아 산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억에 남는다.

글쓰기

목록

이전글

고흐의 해바라기 그리기(정준)

다음글

후기 인상파 다시 배우기

MokPo - Si
Web Contents

